

# 군산시, 올해 기초생활보장 강화

### 생계급여수급자 4인 가족 기준 월 183만4000원 상향 지원

군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2024 기초생활생계급여 지원을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1천원에서 183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1만 3천 원을 상향 지급한다.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전년도 생업용 자동차 160cc 미만 승용자동차 재산 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액의 50%만 산정하였던 것을 2024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

용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재산 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전년도 24세 이하에서 2024년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23년 12월 말 1만 9천 명으로 시 인구의 7.2%이다.

또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1만 2천 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

### 익산시,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 제한 이어가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익산시는 아파트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을 2021년 도입했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제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시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급적 사업계획확인을 불허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라도 정형화된 부지를 활용하고, 주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충실히 마련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 판단 후 승인이 이뤄진다.

또한 건축 관계자 문의 시에도 이 같은 사업승인 방안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해 더욱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모현동의 한 비정형화 부지에 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 제한을 통한 익산시 난개발·과잉 공급 방지를 이유로 들어 불가’ 처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2만 9,000세대 총량제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가며 공급과잉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 공동주택 위주로 적제적소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읍면동 생활민원책임제 운영

군산시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가 빠르고 투명해진다.

군산시는 2024년 1월부터 지역 내 주요 현안과 현장 중심 신속 민원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민원책임제’를 운영한다.

이는 읍면동과 부서 간 민원공유와 신속한 민원 대응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합민원과 민원처리에 대한 피드백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시는 읍면동장과 과과장장을 ‘생활민원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부 행정시스템에 ‘생활민원책임제’ 게시판을 신설해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 대장 관리·결과 통보까지 민원 처리 전 과정을 읍면동과 부서가 공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소통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신선한 지역 농산물로 초등 돌봄교실 도시락 지원

### 익산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선정... 시범 운영 2억원 투입

익산시가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 도시락을 제공한다.

익산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서 선정된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초등돌봄 건강도시락 공급)’을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중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발굴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2억 원이 투입된다. 신선하고 안전한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방학 중 아이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건강 도시락은 돌봄교실에 다니는 일부 초등학생에게 오는 8월부터 무상 제공된다. 우선 올해 익산시 도심권 6개 학교, 28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내년에는 도심권 32개 전체 학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대상학교 선정을 맡고,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식재료 조달, 도시락 배송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인 ‘정년식당’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식단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 예

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조달하고 먹음직스러운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며 “맛별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제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가 전국 각 지역으로 배분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치매예방·관리사업 확대 지원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2024년부터 치매 환자를 비롯한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에게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치매 환자에게 지원되었던 치매치료관리비는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월 3만원(연 36만원) 내 약제비와 약 처방 담임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치매 환자 모두에게 지원한다.

또한 치매로의 이환 단계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에게 한의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증증화를 방지하고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

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참여 한의원 모집 후 교육 이수 결과에 따라 시행 한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자 모집 또한 올해 1월부터 시작되며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50여 명이 우선 선정된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민기록관, 역사문화 온라인 창(窓) 연다

익산 시민의 기록으로 익산의 역사, 문화, 생활 변천사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익산시민기록관’이 8일 공식 운영한다.

과거와 현재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원천이자 미래를 보는 지혜의 창(窓)이 되어줄 민간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익산시민기록관’에는 총 1만4천여점의 민간 기록물이 담겨있다.

익산시민기록관에는 그동안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등에서 모인 민간기록과 문화도시, 도시재생, 농촌활력 분야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수록됐다.

또한 시민참여형 커뮤니티 맵핑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이 직접 우리 동네의 주요 기록물을 등록해 지역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익산 기록물을 쉽게 접하고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주제·시기별 범주화 및 소장기록물 컬렉션, 온라인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의회, 2024년 군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4일 리츠프라호텔에서 열린 2024 군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군산상공대상 시상식 인사말, 케이크 커팅식 등 진행되었다.

김영일 의장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2024 군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갑진년 새해 우리 군산 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우리 산업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합심 응원의 박수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 한 해 군산에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다”며 “특히 어려운 일은 군산의 운명이 달린 새만



금 관할권 문제로 군산과 김제·부안 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로 가야 하는데 김제는 오로지 관할권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산시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군산을 지키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겠냐”며 “갑진년 청룡의 기상으로 우리가 뽀짝 뽀짝 새만금 관할권 시수와 함께 새로운 산업,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최대 60% 지원 확대

군산시가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60%를 시비로 확대 지원하여 양육부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이용가정이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가’ ~ ‘다’형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15% ~ 85%까지 리형은 100% 본인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군산시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던 ‘가’ ~ ‘다’형의 경우 정부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를 추가 지원, 정부 지원이 되지 않던 ‘다’형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다음 달 모 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은 다형과 리형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